

해외여행책,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여행패턴 변화... 직접취재로 구체적 현장정보 수록해야

金允基

해외문화교류회 회장

해외여행 패턴의 3단계 변화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여행의 형태와 여행자의 요구사항도 다양화되었다. 얼마전만 해도 여행의 목적은 다만 'Sight-seeing'(관광)에 한정되었던 시기가 있었다. '세계일주'란 여행상품이 등장했던 것은 당시의 사정으로서 불가피했던 것이다. 세계일주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행일수도 길어야 했고, 방문국가도 많아야 했다. 이때의 여행 코스 중에는 미국과 유럽은 물론, 서남아와 일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행은 흡사 군대의 이동과 같은 규율과 강제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는 없었다.

그 뒤 여행의 패턴은 세분되기 시작, 유럽여행, 미국여행, 남미여행 식으로 지역별로 코스가 분리되었다. 여행일수가 짧아지고, 관광대상지의 폭은 확대된 것이다. 여행사의 상품들은, 가장 많은 곳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값싸게 구경하는데 초점을 두게 되었다. 이 결과 산출된 대표적인 성공상품은 '유럽버스여행'이다. 그러나 이 여행패턴도 다양한 개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적당치 않았다.

먼저 첫 번째 편이상의 여행패턴의 제1기 현상이라고 부른다면, 나중 것은 제2기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오늘의 여행패턴은 제2기 현상의 말기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제3기 현상은 어떤 패턴인가. 물론 앞으로는 더욱 세분화된 여행패턴의 시기가 올 것을 가상할 수 있다. 여행지는 유럽, 미주, 남미의 '대륙단위' 여행패턴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며칠간, 미국의 동부지역 며칠간 식으로 '국가단위' '지역단위' '도시단위'로 좁아질 것은 틀림없다. 여행기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축소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여행의 목적개념이 달라질 것이라는데 있다. 지금까지 단순히 'Sight-Seeing'에만 집착되었던 개념이 'Enjoy(도락)'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행이 다만 구경에 그친다면 영화관에 가서 다큐멘터리 기록영화를 보는 편이 낫다. 여행의 더 진실한 목적은 이질사회, 이질문화에 접촉하면서 그 향기와 그 색채를 감각적으로 흡수하는데서 찾아야 한다면, Sight-seeing은 너무 고루하고 입체성이 없다.

현장취재 결여된 '복사판'이 대부분

여행안내책자의 편집은 여행패턴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의 변천에 따라 그 위상을 정해야 한다.

사실 6·25의 전란과 경제적 빈곤을 겪어야 했던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여행패턴 제1기 현상 이전의, 전기현상의 시대도 있었다. 이 시기에는 그야말로 특정한 사람에게만 여행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여행기나 기행문이 여행안내책자의 구실을 대신했다. 金燦三씨의 여행기가 불타나게 팔렸던 이유도 이런데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좋은 여행안내서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현장취재에 의한

살아있는 정보의 수록이다.

외국에서 간행된 것들을 적당히 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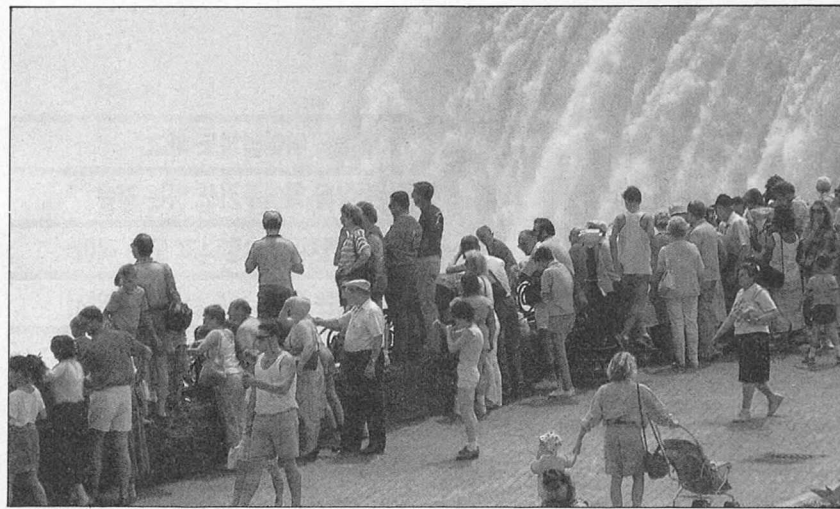
편집해서는 이제 더 이상 안내서로서의

유용성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제한된 조건하에서나마 해외여행이 가능하게 되었던 제1기 시대부터는 천천히 여행정보의 필요성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세계를 하나의 단위로 한 여행정보는 간략할 수밖에 없었다. 즉 여행지의 역사적 배경과 개요, 기후, 교통편, 환율문제, 사용언어 정도로 충분했다.

이때 출간된 대표적 여행안내책자로는 대한공론사의 「世界旅行가이드」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아시아, 중근동, 북미,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걸쳐 공산국가를 제외한 전세계 각국이 단권에 소개되고 있다. 마치 사전처럼 한개의 나라도 빠짐없이 수록된 열외했다는 장점은 있었으나, 여행자가 현지에서 겪어야 하는 문제들에 대한 현장체험과 현장정보는 전혀 기술되지 않았다.

여행패턴의 제2기 현상은 현장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가이드북을 요망하게 되었다. 지역별 여행안내책자가 등장하고, 식사·호텔·쇼핑·나이트라이프에 이르기까지 상세된 가이드북들이 여러 곳에서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책자들 중 대부분은 현장체험이나 취재가 결여된, 複寫型 가이드북이 대종을 이루었다. 즉 일본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공개된 정보들을 취합, 복사변형한 그런 가이드북들이 대부분이었다.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던 시대였고, 또 수익성의 보장도 없는 출판시장 사정으로 볼 때 불가피했던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여행자의 요구가 다양화된 시대에는 여행안내서도 다양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사진은 나이에가라 폭포를 찾은 여행객들.

결과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개성적 가이드북의 몇가지 예

이제부터 곧 제3기 여행패턴의 시대가 오게 된다. 이 시기의 특색을 살펴본다면,

- 1) 여행지역은 도시별, 지역별로 더욱 세분화되고
- 2) 여행의 목적도 직업과 개성에 따라 다양화되며
- 3) 여행기간은 더욱 짧아지고
- 4) 개인의 사정에 따라 여행시기 선택이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

여행안내책자들도 당연히 시대적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며, 편집방침의 개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미 제3기의 완성에 들었다고 볼 수 있는 여행선진국 일본의 최근 여행안내책자의 편집 경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편집형태에 따라 구분해보면,

- 1) 철저한 현장정보중심 편집이다. 일례를 든다면, 山과溪谷社의 「便利帳 시리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①知(기초정보) ②見(관광정보) ③遊(자유시간 이용정보) ④樂(스포츠와 레저정보) ⑤食(각국 요리 소개와 전문점 정보) ⑥買(쇼핑정보) ⑦暮(생활정보) ⑧醫(질병치료정보) ⑨學(학생필수정보) ⑩Help(비상시정보)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정보는 1개 도시에 한정되어 있다. 가령 「Paris의 便利帳」의 식사정보를 보면 파리 시내의 한국식당 이름과 위치·전화·가격이 표시되어 있고, 의료정보에 보면 파리 시내에서 일본어를 해독하는 의원명이 제시되어 있다. 여행자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가 책 1권에 수록되어 있어, 1개 도시에 한정된 여행일 때는 요긴한 역할을 할 수 있다.

2) 현장체험담을 곁들인 여행정보 가이드북의 경우는, 현지의 필수정보 외에 경험자들의 코멘트를 수록하고 있다. 사실 경험의 전수는 이론의 전수보다 더욱 현장감이 있다. 내가 기본 식당·호텔 등의 소개말은 숫자로 나열된 정보보다 유익할 때가 많다. 다이아몬드社의 「地球의 산보법」시리즈에 보면 '내가 추천하는 식당' '내가 타는 X X 열차'식의 코멘트가 무수히 삽입되었다.

3) 특집형 가이드북도 있다. 日本交通公社의 「마이 패스포트」시리즈가 그런 유형이다. 이 책은 잡지처럼 편집되었고 이슈 중심으로 해설되었다. 가령, 파리를 소개할 때는 새로 개관되어 화제에 오르고 있는 오르세역 박물관이 톱으로 등장한다.

4) 개성적 여행에 필요한 가이드북도 있다. 三修社의 「유럽기차여행 가이드」 「유럽민박여행」 「프랑스의 城과 포도주여행」 「파리의 선술집」시리즈 따위가 그런 유형이다. 이 책자는 여행목적이나 방법에 따라, 한정된 정보가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5) 여행방법에 따라 편집된 가이드북으로서 EEC의 「하루 25달러 여행」이 있다. 싸고 경제적인 여행정보를 중심으로 편집되어 있다.

가장 좋은 여행안내책자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여행이 자유화되고, 개성적인 여행이 주류가 되고, 여행자의 요구가 다양화된 시대에는 여행안내책자도 덩달아 다양화되는 것이 원칙이다. 어떤 한가지 기본형을 제시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가지 전제하고 싶은 조건이 있다. 그것은 현장취재에 의한 정보의 수록이다. 복사형 정보는 한국인의 개성이나 실정에 어울릴 수 없다. 또 체질과 취향이 다른 남의 나라 정보에 따라 한국인이 여행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